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온 땅은 하나님의 성소 성경: 이사야 11장 1-9절

Tag: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 할 것ियो

2 그의 위에 여호와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 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떼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 이니라 (사11:1-9)

부흥한국(위십 선교단체)에서 2003년 ‘온 땅은 하나님의 성소’라는 곡을 발표하였다. 예루살렘 성전만 성소가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신앙고백이다.

구약성경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표현이 두 군데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11장 9절과 하박국 2장 14절이다.

14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사야서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것임이니라’라고 선언하였고, 하박국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라고 선언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 당연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박국서의 배경은 암담하고, 이사야서의 배경은 찬란하다.

하박국서는 유다의 범죄에 대한 한탄으로 시작한다. 곧이어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박국의 질문이 시작된다. 아무리 유다가 심판받아 마땅하기는 하지만,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다니,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니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바벨론은 더 크게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고, 유다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 걱정 말고 믿음을 잃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이다.

하박국은 온 세상이 죄악으로 암담한 지경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셔서 결국 그 중에 남아있는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계시하신 셈이다. (심판을 통한 통치)

이사야서는 보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개입을 예언하셨다. (사랑을 통한 통치)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을 통해서 통치하시길 원하는가 사랑을 통해 통치하시길 원하시는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통치를 간절하게 원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직접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 1절 말씀은 분명히 메

시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 할 것이요

2~8절은 메시아의 성품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룩하려는 하나님나라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성품) 그는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이는 다분히 기독교인들이 이런 성품을 본받아야 할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 뒤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묘사했다.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4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가난하다고 해서,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 주시지 않는다.

요즘 정치인들이 약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 마약을 사용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하나님은 공의에 관심이 많으시다.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극렬하게 표현하셨다. 그래서 사실 예수를 격하게 믿는 것 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은 없다. 그래서 따뜻 미지근하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성에 차지 않으신다. 차라리 차갑게 믿으면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뜨겁게 반응하실텐데 따뜻 미지근하게 믿으면 이 어정쩡한 반응에 하나님은 오히려 내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만 뜨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도 뜨겁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사랑만 강조하고, 공의를 강조하지 않는 자들에게 분노하신다. 그들은 가짜 기독교인이다.

사랑의 종교이니 동성애자들도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는 퀘변론자들에게 속는 자들은 하나님을 격하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감정을 만드신 장본인이시다. 마귀적인 것들을 미워하도

록 만드신 것이다.

정의감은 자신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세심하게 그 어려움을 돕도록하는 감정이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국법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통치자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통령이나 관리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들의 통치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개개인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일가친척이나 가까운 이웃들 중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못본척 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럴 수 없다.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독교인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보살피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 포퓰리즘은 정의가 아니다, 그것은 표퓰리즘이나 퍼퓰리즘으로 읽히기 쉽다. 그런 것은 사악한 정치인들에게 마약과 같다. 국민들은 정의로운 눈으로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후보를 바라보아야 한다.

공의는 정치인의 몫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몫, 특히 기독교인의 몫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6~8절은 창조세계 전반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사자로 하여금 풀을 먹으며 살게 하라! 심지어 어린아이라도 뱀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이다. 아직은 요원하다. 현재로서는 기껏 무인 자동차를 통해서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시도하는 중이다. 조만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 생각에 아마 한세기도 지나기 전에 에너지 문제도 완전히 해결될 것 같아 보인다. 식량문제는 이미 해결된 듯한 분위기다. 이미 오히려 비만문제가 더 다급한 숙제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석유는 에너지원이나 연료가 아니라, 상품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앞으로는 더욱 공산품과 식량자원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

성이 커져갈 것이다. 대신 오히려 문화상품, 정보나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는 콘텐츠, 금융, 인터넷이나 유통, 관광, 교육이나 이념관련 직업, 디자인, 건축, 해양 생태계, 자연탐사, 종교, 정치, 법률, 예술, 연구, 의술 등에 폭발적인 직업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바야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 현재 세상이 더 폭발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들이 이념 갈등, 후진 정치, 반 기독교 세력 등이다.

또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불법행위자들, 예를 들면 중동의 만수르, 중국의 고위간부등이 척결 대상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 개념에 의하면 곧 멸망당할 바벨론 세력에 해당된다.

예수님은 온 땅이 복음화 될 것을 예언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가정을 튼실하게 가꾸어야 하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온 땅은 하나님의 성소다! 아멘.

11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12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3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14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15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6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20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합2:1-20)

<찬양예배>

제목 : 세상을 유지하는 경건 성경: 느헤미야 1장

Tag:

-한 사람의 경건이 세상을 유지한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

예루살렘 성에 위기가 닥침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함

-공흠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공흠이 작동하는 첫 번째 키Key는 회개이다.

-회개 없는 사랑은 퍼폴리즘.

-가난한 자라도 회개가 필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은 회개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느헤미야에게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는 술 관원이었기 때문이다.

-약 5개월 후 왕의 잔치에 느헤미야는 포도주를 왕께 드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2:6절에 보면 왕비도 그 곁에 있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왕비에게도 신임을 얻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하나님은 왕비의 말을 통해서도 아닥사스다 왕의 눈을 열으셨을 것이다.

-감성적 접근의 중요성.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파견될 것, 주변 총독들을 독려해야 할 것 등을 미리 세밀하게 짜 놓았다.

